
1998년 8월 건봉사에서 열린 6차 전국염불만일회 결성식.


2001년 5월 동산불교회관 개관식.


2003년 12월 불교성전 보급 선포식.


2003년 12월 제1회 대원상 수상.

“재가·생활·실천불교 기치 다시 높이자”

동산반야회 김재일 법사 10주기 추모법회 개최

추모법회엔 500여 불자 운집해
법산 스님 “동산 용맹 이어지길”
법타 스님 “정법 실현 나서달라”
동산반야회 10주기 추모집 발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계 최초로 재가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재가불교운동을 펼친 故김재일 법사 10주기 추모법회가 열렸다. 동산반야회와 동산불교대학(이사장 이종현)은 6월 23일 서울 동산불교대학에서 김재일 법사 10주기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추모법회에는 동산반야회 법주 법산 스님을 비롯해 법타 스님 등 종단 원로 스님들과 재가불자 5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렸다.

故김재일 법사는 불교계에서 최초로 재가교육운동을 펼친 선구자였다. 故김 법사는 1949년 11월 23일 전남 영암에서 태어나 어려서 할머니를 따라 절에 다닌 것이 계기가 돼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광주상고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수료했다. 故김 법사는 군종병으로 군생활을 하던 당시 수계 인연으로 무진장 스님을 만나 청년시절 불교 대중화 운동에 꿈을 품게 된다. 이후 1982년 무진장 스님을 법주로 동산반야회를 창립했다. 동산반야회는 불교계 최초의 재가자 불교경전 교육 단체였다.

당시 故김 법사는 서울시 공무원이었다. 故김 법사는 불교 대중화에 전념하기 위해 명예퇴직 후 1992년 동산불교대학을 불교계 최초로 설립하게 된다. 동산불교대학은 조계종 포교원이 실시하는 포교사 고시에 최다 합격자를 배출해 포교사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또 1994년 한국재가불자연합을 결성,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붓다클럽 등을 설립했다. 1998년에는 염불만일회를 결성해 아미타불의 정토화 실현을 발원해 지금도 계승하고 있다.

故김 법사의 불교적 삶은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한문구조의 불교경전과 의식을 고치는 것이었다. 故김 법사는 불교사상강연회, 불교성전 호텔 배부 등 생활속 포교에 앞장섰으며, 인도 석가족 마을 불교 개정운동, 네팔학교 건립 추진,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 운영 등 불교의 대사회적인 행보에도 앞장섰다. 하지만 故김 법사는 2008년 6월 18일 60세의 일기로 ‘동산’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런 모습에 대해 동산반야회 법주인 조계종 대종사 법산 스님은 “김재일 법사는 신념과 실천 의지로 한국불교 현대사 중 재가불교운동의 싹을 틔운 선각자”라며 “재가불교,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3대 목표 기치를 높이 들었던 동산의 용맹력이 김재일 이사장 입적 10주기를 계기로 재발심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법타 스님도 “1000만 불자가 700만으로 줄었다 해도 누구 하나 비분강개 하지 않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바위같은 불가로 추락했다”며 “성주괴공의 회전 속에 정법구현 실현만이 오늘의 진통이 되어 내일의 정토실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추모했다.

이날 법회에는 재가불자들의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이종현 동산불교대학 이사장은 “생전에 일군 다양한 사업은 꽃몽우리만 맺은 채 크게 펼치지 못하고 있다. 10주기를 맞아 못다한 일을 완성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또 다른 전법 포교의 서원을 다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동산반야회와 동산불교대학은 故김재일 법사의 10주기를 맞아 E-book 형태 추모집 〈불국정토의 꿈을 위하여〉를 펴냈다.



김재일 법사가 남긴 발자취

1982년 11월	동산반야회 창립
1984년 3월	불교기초교리 강좌 교계 최초 개설
1986년 3월	압구정동 반야포교원 개원
1992년 8월	2년과정 동산불교대학 개설
1994년 9월	동산불교전문연구원 개설
1994년 11월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 창설
1998년 8월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결성
2001년 5월	동산불교회관 개관
2002년 11월	정토진종 양원사 결연
2002년 6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결성
2002년 10월	석가족 불교개정운동 동참
2004년 8월	붓다클럽 창립, 재가불자헌장 발표
2007년 4월	대아미타사 건립 발원 기도 입재
2008년 6월	향년 60세로 타계

장애부모 32명의 달콤한 2박3일 휴가

강북장애인福 장애부모 캠프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월 19~21일 2박 3일 일정으로 장애자녀를 둔 부모 32명과 함께 울릉도에서 ‘장애 주돌봄자를 위한 휴식지원 휴(休)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장애부모의 사전 선호도 조사를 통해 울릉도로 장소를 선정했으며, 울릉도 섬 관광 및 죽도, 유람선 투어 등 다채로운 활동 등이 진행됐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 자녀가 안전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대리 돌봄제를 시행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이현숙 씨는 “아름다운 곳에서 행복한 휴식을 취하고 가게 되어 너무 좋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여행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측은 “장애인 주 돌봄자들의 휴가를 지원해 장애자녀의 양육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주 돌봄자 간 격려의 장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마음법과 물질과학 만나 세상을 이롭게

한마음과학원 소속 심성과학자들 한자리에

선법가를 듣고 자란 콩나물은? 한마음의 원리로 이뤄지는 교육은?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으로 사는 삶은? 관(觀)하는 사람들의 뇌파는? 궁금한 것이 많다. 궁금증이 있으면 답을 찾으려는 노력도 있기 마련이다.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마음의 원리로 규명해 내는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 소속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마음과학원은 마음의 원리가 물질로 나투는 도리를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증명해 보이는 심성 과학의 중요성을 일찍이 설파하신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따라 1996년 설립되었다. 그동안 한마음과학원에 소속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보편의 언어로 마음법의 세계를 풀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최근 젊은 학자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지난해부터 스터디그룹별로 주제를 정하고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6월 23~24일에는 이들의 지난 연구 과정들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2018년도 스터디그룹 중간발표’ 모임 및 수련회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열렸다. 1박 2일 동안 도량에 머물며 심성과학자로서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발표 시간뿐 아니라 공양시간, 휴식시간 까지도 열띤 토의들이 이어졌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던지는 질문들은 다음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한마음의 원리를 공부하는 과학자들의 모임, 한마음과학원이 6월 23일~24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연구 과정을 공유하고 보고하는 시간을 개최했다. 사진은 공학팀 발표 모습.

의학 팀은 “대행 스님께서는 이미 20년 전에 각자가 하는 생각은 대뇌를 통해 정신계로 전달이 되고 이는 다시 현실로 나온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관법 수행을 할 때 나타나는 뇌파의 특성을 파악해 뇌파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하는 연구와 한마음선원 불자들의 뇌파 특성도 파악 중이다.

이번 행사에는 한마음과학원 원장 혜수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한마음과학원 지도법사 혜찬 스님을 비롯 운영위원 스님 및 한마음과학원 회원 등 50여명이 동참했다.

한마음과학원은 중간발표 이후 이어진 연구 결과를 오는 가을 학술대회에서 공유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전국 어린이 지도자 한자리에

동련, 제64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성료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신공)은 6월 23~24일 충북 보은 속리산유스타운에서 ‘제64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어서와! 이런 캠프 처음이지? 육바라밀 Ⅱ-선정바라밀’을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회에는 이사장 신공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 최미선 동련 사무국장 등 어린이지도자 교사 300여명이 동참했다.

입재식에서 동련 이사장 신공 스님은 “동심으로 돌아가 모의 불교학교를 체험하고 각 사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소개와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각 사찰에서 잘 활용해 어린이 포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1박 2일 동안 참가자들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획한 ‘선정 바라밀’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활용 방안을 연구 학습했다. 첫날 강의에서는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이 ‘내 마음의 행복을 찾아. 어린이 청소년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어린이 법회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동련 이사장 신공 스님의 ‘이런 선정바라밀은 처음이지!’ 강좌도 이어졌다.



동련은 6월 23~24일 충북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제64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둘째날에는 12가지 선정에 관련된 선택 강의와 범우 스님의 ‘선정아 가즈아!’ 강좌가 진행됐다.

한편, 이번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에서는 연꽃문화제 수상자 시상식과 사단법인 동련 경북지구 발대식도 함께 개최됐으며 초대 경북지구 회장은 현종 스님이 임명됐다.

현종 스님은 “앞으로 경북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하성미 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공단등


만월등


불기등


사찰 고유의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